



2004년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저희 학회는 그 동안 꾸준히 발전하여 회원수가 3,000여명이고 년차 학술대회에 1,200여명이 참석하며 발표논문 수도 700편에 이르는 커다란 학회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외적 팽창과 더불어 질적 향상도 괄목하여, 국영문 학술지인 ‘폴리머’와 영문지인 ‘Macromolecular Research’의 해외평가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특히 영문지의 경우 해외평가의 척도인 ‘science impact factor’가 0.988로서 세계 고분자 관련 학술지 74종 중에서 27위를 차지하였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단연 으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회원들의 노력과 관련 산업계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

입니다.

이제 저희들의 숙제는 대내적으로는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비하여 고분자 연구인력의 지속적인 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시점이고, 대외적으로는 보다 활발한 학술 활동과 국제화를 통하여 저희 학회의 국제지위 향상에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금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첫째, 산업계 회원의 참여를 증가시키고 학회활동을 진작시켜 학회가 진정한 ‘산학협동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학회의 국제적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최근부터 노력하여 온 학회의 열린 운영과 전자운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멀리 대구에서 자주 올라오며 학회 운영에 수고하신 이동호 회장님과 모든 일을 열성적으로 수행한 송기국 전무이사님과 운영이사진들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다시 한번 회원 여러분의 번영과 국내 고분자 산업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4년 1월 1일
신임회장 김 영 하